

개념도를 활용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

김 혜 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생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통하여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성애자 성인 총 17명(남 9명, 여 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초점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평정자가 이를 분석하여 총 90개의 형용사구를 추출하였다. 17명의 참가자들이 90개의 진술문을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긍정적’과 ‘평가적-공감적’의 두 차원이 나왔으며,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성적인 문제를 가짐’,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 ‘긍정적 특성’의 5개의 군집이 산출되었다. 군집별 중요도는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긍정적 특성’, ‘성적인 문제를 가짐’,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성인 이성애자의 인식 내용, 구조와 차원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동성애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및 훈련의 개발과 보완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혐오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남성 동성애자, 이성애자 성인, 인식, 개념도

* 본 연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차세대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미카엘관 / Tel : 02-2164-4271, E-mail : kyu@catholic.ac.kr

최근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주요하게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혐오, 양극단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2000년 70여 명의 참여로 시작했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매해 규모가 커져 2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6만 여명이 참석하였다(김미향, 2019). 동성애자들은 그간의 부정과 침묵을 깨고, 성적 행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정체성(identity)’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간 비가시적이었던 동성애자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성애자의 다양한 인식과 입장 역시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서동진, 2005).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삭제, 군대 내 균형법과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동성애에 관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유은혜, 2018).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동성애자를 나의 이웃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001년 17.58%에서 2010년 22.4%로 증가하였으며, 동성애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1=‘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에서 10=‘항상 정당화된다’) 문항의 평균은 2000년 2.77에서 2010년 3.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혜, 2018). 반면 전국 규모의 조사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박수미, 정기선, 2006),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동성애는 죄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확인되었다(이봉재, 2006). 이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도기적 상황으로, 동성애를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하였지만 인지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Jin, Jung, Kim, & Park., 2013).

인간은 주변 지인들, 지역사회, 언론, 사회적 체계, 문화 규범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최가희,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주류인 이성애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동성애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internalized homophobia)’를 유발하여(Williamson, 2000) 자기혐오, 죄의식, 수치심과 자해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Wright & Perry, 2006). 또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차별적 태도로 이어져(Fiske, 2000)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가희, 2010; Lewis, Derlega, Brown, Rose, & Henson, 2009; Kuyper, & Fokkema, 2011; Lick, Durso, & Johnson, 2013).

성소수자 집단은 이성애자보다 상담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Carney, & Kluck, 2012). 국내의 경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상담 내방 비율을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상담자(24.3%~35.5%)가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경험을 보고하였다(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동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문적 상담역량뿐 아니라, 동성애 상담역량이 요

구된다(Bidell, 2005). 동성애 상담역량은 다문화 상담역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에서 파생된 것으로 동성애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의미한다(Israel & Selvidge, 2003).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인식하게 촉진한다는 점에서 동성애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원 및 상담수련 기관 커리큘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상담자들은 동성애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이민정, 2015; 양희선, 2017). 또한 국내 상담 심리학계는 동성애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로 동성애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이지하, 심다연, 양민욱, 김혜선, 2014),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자 태도 연구(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등이 있지만 주제나 수가 제한적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분야 역시 단순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거나(강혜경, 2018), 사회적 소수자 중의 일부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들(박수미, 정기선, 2006; 이봉재, 2006)만 있을 뿐, 동성애자들만 구분하여 구체적인 인식을 탐색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외국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연구들이 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Gurwitz & Marcus, 1978; Laner & Laner, 1980; Staats, 1978; Weissbach & Zagon, 1975). 고정관념(stereotypes)은 특정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하여 믿는 신념이며,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Aronson, Wilson, & Akert, 1999).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매우 다양하다(Clausell & Fiske, 2005). 그중 젠더 반전이론(gender inversion theory)은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를 주도한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다(Kite & Deaux, 1987; Taylor, 1983). 젠더 반전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남성 동성애자를 여성 이성애자와 유사하게 인식하고 레즈비언은 남성 이성애자와 비슷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젠더 반전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Kite와 Deaux(1987)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남성 동성애자는 높은 목소리와 민감한 성격적 특성을 가졌다고 보았으며 이런 점을 여성스럽게(feminine) 인식하였다. 레즈비언은 짧은 머리, 거친 스포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남성적인(masculine)인 특징으로 판단하였다. Madon(1997)의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를 섬세하고 감정적이며 여성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레즈비언을 남성스러운, 거친,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Geiger, Harwood, & Hummert, 2006). 그 밖의 연구들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화려한, 여성적인, 여장하는, 드라마틱한, 눈물이 많은, 과도하게 감정적인, 관심받고 싶어 하는, 수다스러운, 낯선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인식하였고, 이런 면을 여성적인

라고 평가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Boysen, Vogel, Madon, & Wester, 2006; Clausell & Fiske, 2005). 사람들은 남성적으로 인식되는 레즈비언보다 여성적인 특성을 보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Madon, 1997; Mitchell, Phipps, Voignier, Henson, & Ellis, 2001). 실제로 청소년, 성인 남성 동성애자는 덜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게 하고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Koeske, Silvestre, Korr, & Sites, 2006; Mitchell et al, 2001).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Fiske, Cuddy, Glick, & Xu, 2002), 대학생과 상담전공 석사생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정신장애 증상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불안장애, 성격장애, 기분장애, 섭식장애, 성 장애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호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ysen et al., 2006).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인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Fiske et al, 2002). 따라서 국내 동성애자들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성애자 한국 성인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 동성애자보다 가시화되어 있다(윤성옥, 성승연, 2011). 이는 커밍아웃, 동성결혼, 군형법, 에이즈(AIDS) 등과 같은 동성애에 관한 치열한 사회적 논쟁에 남성 동성애자가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던 홍석천과 2013년에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이다(배재훈, 2014).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성 동성애자에 비해 분명하고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 동성애자들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외현적·암묵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서영석 외 2006;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이나 인식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국내 이성애자들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성애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과 관련된 인식의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Kane & Trochim, 2007)을 사용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간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식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념도 방법은 연구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및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적합하다. 개념도 방법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탐구 대상자들이 직접 그들의 고유한 의미 체계를 활용하여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과 다르다. 이로써 연구자의 편견은 최소화되고, 가시적이고 명료한 인식 구조의 탐색이 용이해진다(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민경화, 최윤정, 2007).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도출된 핵심 형용사구를 추출한 후, 그들에게 다시 의미 있는 군집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잠재의식 구조와 차원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인식의 차원과 각 차원의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개념도 연구방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나 최소 10명 이상 40명 이내를 권장하고 있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는 이 조건에 따라 총 17명(남 9명, 여 8명)의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C대학의 온라인 게시판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연구 참여 모집 공고를 하여 모집되었다. 최종적으로 20대 6명(남 3명, 여 3명), 30대 6명(남 3명, 여 3명), 40대 5명(남 3명, 여 2명)이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2.4세이

며, 기혼자는 6명, 미혼자는 11명, 대학 재학 중인 참여자는 5명, 대학 졸업자는 9명, 석사 학위자는 3명이었다. 남성 동성애자 지인이 있(었던)는 참여자는 20대 4명, 30대 1명, 40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이성애자들이 지각하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개념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6단계의 개념도 제작 절차를 실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준비단계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을 위한 적절한 초점질문(focus question)을 도출하였다. 초점 질문 적합성을 위해 초점질문 개발 과정에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5명과 논의를 거쳤다. 최종 초점질문은 “남성 동성애자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자가 이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였으며, 면담은 30~4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에 대한 사전 안내와 남성 동성애자의 개념, 남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2명, 연구자로 구성된 4인의 평정팀은 Giorgi(1992)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 4단계에 따라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축어록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형용사구들을 추출하였다(총 497개). 4회의 모임을 통해 평정팀은 추출된 형용사구를 모으고, 공통되게 추출된 형용사와 그렇지 않은 형용사를 구분하였다. 공통되지 않은 형용사들은 논의를 통해 극단적인 개인적 가치관과 신념(예: 퀴어 페스티벌에 강하게 반대한다. 양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그나마 낫다 등)이 반영되었거나 의미가 모호한 것들(예: 이게 자연계다 등)은 제외되었다. 공통적으로 추출된 형용사들 중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통합하고, 명료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남성 동성애자(게이)는 _____(하다).’의 문장에 적합한 형용사구로 작성하였다. 중복과 의미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 2명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 형용사구를 도출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100개 이하로 아이디어 진술문들을 종합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춰 90개의 최종 진술문이 정리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정리한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평정하는 진술문 구조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진술문들을 카드로 만들어 이전 단계에 참여했던 17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끼리’,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게 하고, 함께 분류된 진술문들의 집합의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진술문의 공감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여 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자료를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개

념도를 그렸다.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0, 다른 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1로 코딩하고 개인 유사성 행렬을 만들어 연구 참여자의 모든 유사성 행렬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Bedi, 2006). 집단 유사성 행렬표에 대해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하여 산출된 x, y좌표 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그렸다. 개념도 연구 과정의 5단계와 6단계의 해석과 활용은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결 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차원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과 관련된 형용사구는 최종 90개로 정리되었고, 형용사구는 최소 3개에서 최대 19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M=7.53$, $SD=4.94$). 차원의 수는 합치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박광배, 2000). 합치도는 실제 데이터와 좌표 위에 위치한 분류대상 간의 거리의 근접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스트레스 값(stress)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현철, 2013). 차원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값은 0에 가까워져 높은 합치도를 보이지만, Kruskal (1964)은 스트레스 플롯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의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그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스트레스의 감소 즉,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박광배, 2000에서 재인용). Kane과 Trochim(2007)은 역시 개념도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학자들도 2차원상의 표상을 권하였다(박광배, 2000; Borg & Groenen, 1997). 2차원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는 .25 이하를 충족시켜야 하지만(kruskal & Wish, 1978), 이는 통제된 연구 환경에서의 심리측정을 기준으로 제시된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념도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개념도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한 평균 스트레스 지수 2.85와 표준편차 .04를 기준으로 95% 신뢰 범위에 속하는 스트레스 지수 .205 ~ .365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Trochim, 1993; 윤성근, 양은주,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차원(.554)에서 2차원(.319)으로 증가할 때, 스트레스 값 감소량이 .253으로 급감하는 지점(elbow)이 나타났으며 3차원(.216)부터는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의 감소 폭이 완만하여 2차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원의 스트레스 값은 .319로 개념도를 위한 MDS 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혜경, 이희경, 2013; 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로써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는 0.571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각 형용사구의 좌표 값을 통해 2차원 공간상에 표상되는 형용사구의 위치가 근접해 있을수록 같은 의미로 인식되며, 거리가 멀수록 다른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선 1차원의 정적 방향에서부터 부정적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정적 방향의 진술문들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평가·

판단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고, 부정적 방향의 진술문들은 공감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2차원으로 진술문을 분석하였을 때, 정적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부정적 방향의 진술문들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격, 행동적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1차원을 ‘평가적 대 공감적’으로, 2차원을 ‘부정적 대 긍정적’으로 명명하였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 군집

90개의 형용사구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로 나타난 각 형용사의 2차원 좌표 값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Ward 방법이 거리 기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도에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의 특성상 최종 군집을 구분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이나 연구 문제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도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Johnsen, Biegel, Shafraan, 2000). Trochim(1993)은 개념도의 군집 수 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 기준이란 없으며 최적의 군집 수는 각 연구 주제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하기에 적절한 군집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 개념도 선행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최윤정, 김계현, 2007)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

구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군집화일정표의 계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을 검토하면서 개념적 명료성, 각 범주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 그리고 범주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5개의 군집 해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정된 5개의 군집을 명명할 때, 각 군집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명명한 제목을 참조하고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2명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군집 2는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군집 3은 성적인 문제를 가짐, 군집 4는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 군집 5는 긍정적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그

림 1에 2개의 차원과 5개의 분류된 군집이 제시되었다.

표 1에는 각 군집별 허용사구와 중요도의 평균이 제시되었다. 중요도는 참여자들에게 진술문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결과이다. 각 군집의 중요도 평균을 살펴보면 1군집(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은 2.96점, 군집 2(젠더 및 성 관련 특성)는 2.70점, 군집 3(성적인 문제를 가짐)은 2.92점, 군집 4(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는 3.43점, 군집 5(긍정적 특성)는 2.93점으로 군집 4(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군집(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군집 4(긍정적 특성), 3군집(성적인 문제를 가짐), 군집 2(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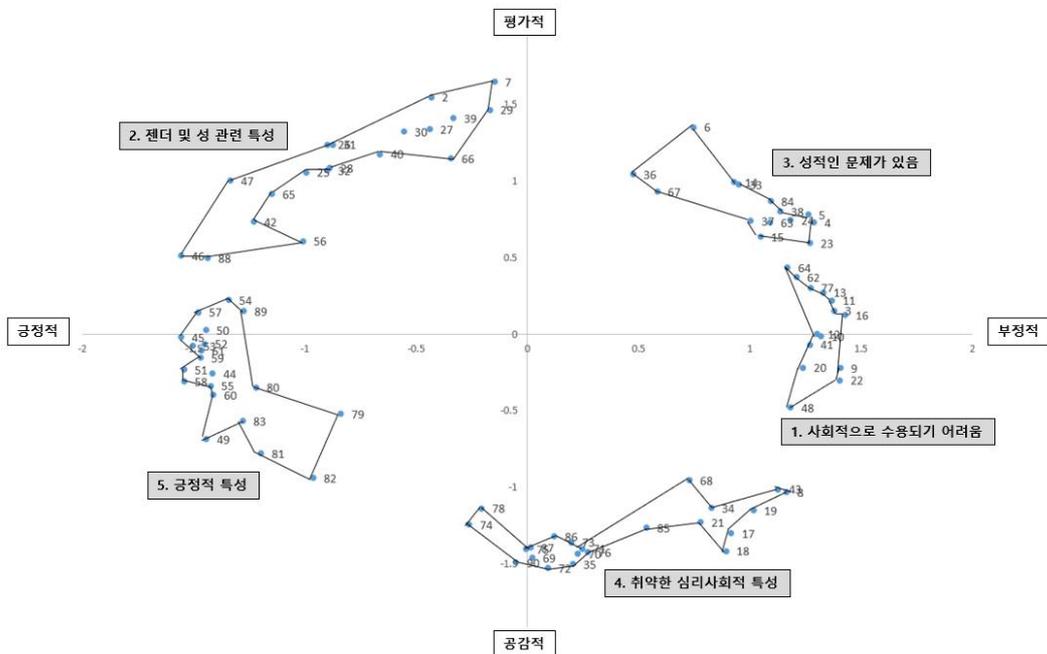


그림 1. 90개 진술문에 대한 개념도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군집 1: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15문장, 중요도 평균=2.96)		
문항	문장	중요도
1	가족관계에 트라우마가 있는	2.39
3	문제가 있는	2.83
9	터부시되는	3.67
10	거부감을 들게 하는	3.43
11	혐오스러운	2.28
12	비호감인	2.89
13	두렵게 만드는	2.44
16	자연스럽지 않은	3.17
20	적응이 어려운	3.44
22	인정받기 어려운	3.28
41	이상한	2.72
48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4.33
62	더러운	2.28
64	변태스러운	2.44
77	갈등을 일으키는	2.83
군집 2: 젠더 및 성 관련 특성(19문장, 중요도 평균=2.70)		
문항	문장	중요도
2	남성들에게 의존했던	1.94
7	여성처럼 키워진	2.06
25	쉽게 들어대는	2.39
26	남성적인	2.06
27	남성적이지 않은	3.61
28	여성스러운	3.67
29	트랜스젠더와 구분이 안 되는	2.39
30	여장을 하는	2.17
31	여성스럽지 않은	2.22
32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이해를 받는	3.50
39	신기한	2.67
40	호기심을 자극하는	2.17
42	이상행이 있는	3.56
46	다르지 않은	2.67
47	자연스러운	3.00
56	스킨십을 좋아하는	2.39
65	성적으로 자유로운	2.78
66	성적 욕구가 강한	2.61
88	여성들과 말이 잘 통하는	3.39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계속 1)

군집 3: 성적인 문제를 가짐(14문장, 중요도 평균=2.92)		
문항	문장	중요도
4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2.61
5	생물학적 이상이 있는	3.00
6	여성과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2.22
14	청소년들의 성적인 호기심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2.78
15	타인의 성적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2.72
23	군대에서 범죄(성폭력, 총기사고 등)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2.61
24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할 가능성이 높은	2.11
33	다른	3.67
36	성적지향을 바꿀 수 없는	3.56
37	성병에 노출된	3.53
38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3.31
63	문란한	2.61
67	성적 욕구조절이 어려운	2.28
84	만남 기회가 적은	3.83
군집 4: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13문장, 중요도 평균=3.43)		
문항	문장	중요도
8	부정적 시선을 받는	4.56
17	차별을 받는	4.39
18	공격을 받는	4.22
19	남성들에게 무시당하는	3.89
21	관심을 못 받는	2.72
34	불쌍한	3.28
35	사회적 약자	3.89
43	여성 동성애자보다 힘든	2.72
68	두려운	2.56
69	불안한	3.11
70	상처를 받는	4.11
71	고민이 많은	3.83
72	속상한	2.94
73	우울한	3.00

표 1. 진술문 내용, 군집, 및 중요도 (계속 2)

군집 4: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13문장, 중요도 평균=3.43)		
문항	문장	중요도
74	예민한	3.00
75	절박한	2.72
76	힘든	3.72
78	화를 내는	2.00
85	숨기는	4.06
86	억압적	2.89
87	위축된	3.33
90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4.50
군집 5: 긍정적 특성(20문장, 중요도 평균=2.93)		
문항	문장	중요도
4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3.00
45	거부감을 들게 하지 않는	2.50
49	섬세한	3.28
50	개발달한	2.44
51	미적 감각이 있는	3.00
52	매력적인	2.17
53	사회성이 좋은	2.72
54	수다스러운	2.50
55	공감적인	3.06
57	음식을 잘 하는	2.33
58	예술적인	2.72
59	용기 있는	3.00
60	자기 자신을 잘 아는	3.94
61	재치 있는	2.44
79	요구적인	2.28
80	주장적인	2.83
81	권리를 찾고 싶어 하는	4.22
82	인정받고 싶어 하는	3.89
83	자신을 드러내는	2.50
89	성 평등에 우호적인	3.67

논 의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이 무엇 인지를 탐색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추출된 특성들의 중요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이성애자 성인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성적인 문제를 가짐’,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 ‘긍정적 특성’의 내용들을 두 개의 차원 즉 평가적·공감적 차원과 부정적·긍정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가장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긍정적 특성, 성적문제를 가짐,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분석 결과를 차원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가적·공감적 축과 부정적·긍정적 축의 2차원이 나타났다. 부정적 차원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문제가 있는(3번)’, ‘터부시 되는(9번)’, ‘자연스럽지 않은(16번)’, ‘인정받기 어려운(22번)’이 있으며, 긍정적 차원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거부감을 들게 하지 않는(45번)’, ‘미적 감각이 있는(51번)’, ‘예술적인(58번)’이 있다. 이성애자 성인들은 보편적이지 않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수용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동시에, 재능과 역량을 가진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차원인 평가적 차원은 남성 동성애자를 타자화(他者化)하며 평가적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반면,

공감적 차원은 ‘차별을 받는(17번)’, ‘공격을 받는(18번)’, ‘속상한(72번)’, ‘사회적 약자(35번)’, ‘불안한(69번)’, ‘고민이 많은(71번)’ 등으로, 남성 동성애자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성애자 성인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평가적인 시선과 남성 동성애자가 겪는 차별과 심리적 어려움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정관념의 본질이 위계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Geiger et al., 2006).

둘째, 연구결과 도출된 군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성적인 문제를 가짐,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 긍정적 특성의 총 5가지 군집이 나타났다. 군집 3(성적인 문제를 가짐)의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24번)’, ‘성병에 노출된(37번)’,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38번)’, ‘문란한(63번)’, ‘성적 욕구 조절이 어려운(67번)’ 등의 성관련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다(강병철, 하경희, 2005; Klesse, 2005; Brown, & Groscup, 2009). 특히 국내의 경우, 유교적 가치규범으로 인한 보수적인 성문화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성관련 고정관념이 더욱 부정적일 수 있다. 군집 1(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의 ‘터부시되는(9번)’, ‘거부감을 들게 하는(10번)’, ‘혐오스러운(11번)’, ‘비호감인(12번)’, ‘두렵게 만드는(13번)’, ‘더러운(62번)’, ‘변태스러운(64번)’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높은 내용으로 이해된다. 군집 3(성적인 문제를 가짐)에서 이성애자 성인은 남성 동성애자를 ‘만날 기회가

적은(84번)’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 17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6명만이 남성 동성애자와 직접적인 관계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 경험의 부재는 남성 동성애자를 우리와는 ‘다른(33번)’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견고화하고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추출 단계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남성 동성애자와 관계 경험이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뉴스, 예능, 드라마, 유튜브, 인터넷, SNS, 만화책 등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군대에서 범죄(성폭력, 총기사고 등)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23번)’,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38번)’ 등의 진술문들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에 포함된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미디어와 이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남성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성애자의 사회불안 유병률은 이성애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stwick, Boyd, Hughes, & McCabe, 2010; Pachankis & Goldfried, 2006; Safren & Pantalone, 2006; Sandfort, de Graaf, Bijl, & Schnabel, 2001). 동성애자의 사회불안은 사회불안의 전형적인 설명 요인인 사회적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 평가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만으로(Wells, Clark, Ahmad, 1998)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성적지향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노출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높은 우울 수준과 자살 사고를 이해하기 위하여(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젠더 및 성 관련 특성, 긍정적 특성 군집

역시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 동성애자와 관계 경험이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TV에서 보여진 홍석천과 하리수¹⁾, 동성애 코드가 있는 영화와 미국 드라마 등을 연상하며 보고하였는데, 군집 2(젠더 및 성 관련 특성)의 ‘여성스러운(28번)’, ‘트랜스젠더와 구분이 안 되는(29번)’, ‘스킨십을 좋아하는(56번)’, ‘여성들과 말이 잘 통하는(68번)’과 군집 4(긍정적 특성)의 ‘깨발랄한(50번)’, ‘사회성이 좋은(53번)’, ‘수다스러운(54번)’, ‘음식을 잘하는(57번)’, ‘예술적인(58번)’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디어는 가치, 가정(assumption) 및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Hart, 2000; Raley, & Lucas, 2006), 미디어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조명하는 관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군집 3(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은 남성 동성애자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과 그와 관련한 심리 상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는 ‘상처를 받는(70번)’, ‘힘든(76번)’, ‘위축된(87번)’ 경험을 한다고 보았으며, 성적 지향을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남성 동성애자를 ‘불쌍한(34번)’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선이 남성 동성애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 동성애자를 시혜와 배

려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향한 이성애자 성인의 동정적 시선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군집으로 긍정적 특성이 있다. 긍정적 특성에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들이 포함되었다. 그 중 ‘사회성이 좋은(53번)’, ‘공감적인(55번)’, ‘예술적인(58번)’, ‘재치있는(61번)’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긍정적 고정관념이다(Madon, 1997; Morrison & Bearden, 2007).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긍정적 인식 역시 남성 동성애자 개인의 특성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으며, 본질과 상이한 사회적 시선은 남성 동성애자의 자기실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내용의 고정관념만큼 유해하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들은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사회적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보고한다(Adam, 2016). 또한 긍정적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동성애 혐오수준은 긍정적 고정관념에 덜 동의하는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orrison & Bearden, 2007).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집단의 유대인 혐오수준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덜 지지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Jones, 2002). 따라서 국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 고정관념과 차별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긍정적·부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차별적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1) 방송인. 트랜스여성(trans woman, male-to-female transgender)으로 2001년 광고로 데뷔해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애자 성인들은 남성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용기 있는(59번)’ 행동으로 보았으며, ‘권리를 찾고 싶어하는(81번)’, ‘인정받고 싶어하는(82번)’ 동기를 가진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이성애자 성인들이 커밍아웃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각 군집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긍정적 특성, 성적인 문제를 가짐, 젠더 및 성 관련 특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동성애자의 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가장 공감하는 이유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됨으로써 소수자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로 인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 및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윤인진, 송영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이성애자의 높은 인식수준은 남성 동성애자의 인권 증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정이입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나타나 (Parker, & Aggleton, 2003; Tarrant, Dazeley, & Cottom, 2009), 사회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성애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동성애자에게 감정이입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그것이 편견과 차별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군집 2(젠더 및 성 관련 특성) 진술문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이성애자 성인들은 여성적인 특성을 남성 동성애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Boysen et al., 2006; Brown, & Groscup, 2009; Clausell & Fiske, 2005; Haddock, Zanna, & Esses, 1993; Kite & Deaux, 1987; Liben, Bigler, Ruble, Martin, & Powlishta, 2002). ‘여성스러움’은 남성 동성애자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핵심적인 고정관념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특성이다. 젠더 역전이론(gender inversion theory)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적으로 인식되고 여성 동성애자는 남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Kite & Deaux, 1987).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스러운’ 특성을 가진 남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며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스러움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공성욱 외, 2002; Blashill & Powlishta, 2009; Davies, 2004; LaMar & Kite, 1998; Lehavot & Lambert, 2007; Schope & Eliason,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상이하게 ‘여성스러움’이 긍정적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여성 동성애자의 남성적인 특성(soft-butch)’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Geiger et al, 2006). 이러한 여성의 남성적인 특성과 남성의 여성적인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국내 TV 광고에서 남성성에 대한 표상의 변화 추이를 추적한 결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전

통적 헤게모니적(hegemony) 남성 이미지는 감소하고 꽃미남에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성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기현, 2007). 이러한 변화는 부드럽고 자상한 남성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고정화된 행동에 대한 동조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김득란, 1992). 실제로 여성들만의 행위로 간주되었던 외모관리 행위가 남성들 사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성영신, 박은아, 최광열, 한신, 2009), 여성적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남성을 일컫는 메트로 섹슈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박정현, 2005). 또한 남성 안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미의 크로스 섹슈얼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남성의 성역할 양상이 여성화, 중성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직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의 성역할이 다차원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부드러운, 감정적, 공감적, 지지적 등과 같이 여성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특성들이 남성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 집단에서는 남성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남경태, 2004; Davies 2004). 본 연구에서 보고된 군집 4(취약한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특성)의 진술문인 ‘남성들에게 무시당하는(19번)’은 이러한 맥락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동성애자 집단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덜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andolt Bartholomew, Saffrey,

Oram, & Perlman, 2004; Sandfort, Melendez, & Diaz, 2007). 성역할 변화로 인해 여성스러운 남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를 여성스럽게 보는 인식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이성애자 성인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동일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남성 동성애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상담자들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들이 나타내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현실일 수 있다. 동성애자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점에서 이성애자와는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진다(Meyer, 2003).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동성애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임상적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개인 내부에 귀인하는 기존의 심리치료적 접근은 동성애 내담자 상담에 있어 한

계를 갖는다(Sue, & Sue, 2008). 이러한 점에서 동성애 내담자에게 적합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성애자 상담을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가 요구된다(Bidell, 2005). 북미의 경우, 동성애 상담을 포함한 다문화상담역량 함양이 상담심리 교육의 중요한 이슈이다(Burnett, Hamel, & Long, 2004; Manese, Wu, & Nepomuceno, 2001). 또한 미국에서는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위하여 다문화상담역량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원 교과과정과 수련기관 훈련과정에 포함하고 있다(Sue, Arredondo, & McDavis, 1992; Taylor, Gambourg, Rivera, & Laureano, 2006). 이에 반해 국내 상담심리학계의 다문화상담역량에 대한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원 및 상담수련기관에서 동성애에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교육 및 훈련 경험은 상담자의 동성애상담역량을 함양시키며 상담자 본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편향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Bidell, 2005).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상담자들이 동성애 내담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훈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진술문과 군집분류 결과들에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규명하여 사회 소수자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상담심리학자의 역할이 내담자 개인 내적인 변화를 위한 협력자로서의 미시적 측면에서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최가희, 2018). 동성애에 대한 양극단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국내 상

황에서 상담심리학자들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개입과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구분되는 인식차원과 내용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의 인식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념도 방법에서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군집 내에 묶인 진술문들 중 의미가 다른 진술문들도 함께 묶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개념도 연구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김지연, 한나리, 이동기, 2009; 권혜경, 이희경, 2013; 최운정, 김계현,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총 17명으로 비교적 적은 표본수와 무선 표집으로 대상을 선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동성애자 접촉경험 유무와 관계의 질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동성애자와의 관계 여부, 관계 지속기간과 친밀도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와의 관계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 비교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혜경 (2018). 커밍아웃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갈등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20대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향 (2019, 6, 19). 퀴어축제 20년..“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 여덟살 딸과 함께 나갈 것”. 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190601095602685> 에서 검색.
- 김은하, 신윤정 (2016). 중· 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상담일반: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 남경태 (2004). 한국 TV 광고에 나타나는 젠더 표상. 한국광고홍보학보, 6(2), 7-47.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93-1216.
- 박정현 (2005). 신세대소비백서 5. LG 주간경제, 10(12), 8-14.
- 배재훈 (2014) 게이 남성 합창단의 문화정치학. 여/성이론, 31, 140-161.
- 서동진 (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경제와사회, 67, 66-87.
-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서영석, 이정립,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성영신, 박은아, 최광열, 한 신 (2009). 남성의 외모가꾸기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기, 성역할, 외모관심도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2(4), 47-70.
- 양희선 (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한국상담대학원

-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유은혜 (2018).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 의식 변화. *사회과학연구*, 44(3), 185-209.
- 윤성근, 양은주 (2015).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서적 경험과 보호요인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519-541.
- 윤성옥, 성승연 (2011).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17-1049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윤인진, 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 이가희 (2010).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귀, 강승립,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105-124
- 이민정 (2015).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 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재 (2006).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19.
- 이지하, 심다연, 양민옥, 김혜선 (2014).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543-553.
- 정기현 (2007). 한국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젠더표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8, 71-110.
- 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도움경험 분석: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21-35.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윤정, 김계현 (2007). 진로상담: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현철 (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파주: 나남.
- Adam L. (2016. 2. 8). Stereotyping gay men as stylish and witty 'prevents people seeing them as proper individuals'.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people/stereotyping-gay-men-as-stylish-and-witty-prevents-people-seeing-the-m-as-proper-individuals-a6861296.html> 에서 검색.
- Aronson, E., Wilson, T., & Akert, R. (1999). *Social Psychology* (pp. 191-199). New York: Longman.
-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
- Bostwick, W. B., Boyd, C. J., Hughes, T. L., &

- McCabe, S. E. (2010). Dimensions of sexualorientation and the prevalence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468-475.
- Burnett, J. A., Hamel, D., & Long, L. L. (2004). Service learning in graduate counselor education: Develop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3), 180-191.
- Bidell, M. P. (2005). The sexual orientation counselor competency scale: Assessing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of counselors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4*(4), 267-279.
- Blashill, A. J., & Powlisha, K. K. (2009). Gay stereotypes: The use of sexual orientation as a cue for gender-related attributes. *Sex roles, 61*(11-12), 783-793.
- Borg, I., & Groenen, P. (1997). *Modern Multidimensional Scaling. Series in Statistics* (pp. 109-134). New York: Springer.
- Boysen, G. A., Vogel, D. L., Madon, S., & Wester, S. R. (2006). Mental health stereotypes about gay men. *Sex Roles, 54*(1-2), 69-82.
- Brown, M. J., & Groscup, J. (2009). Perceptions of same-sex domestic violence among crisis center staff.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2), 87-93.
- Clausell, E., & Fiske, S. T. (2005). When do subgroup parts add up to the stereotypic whole? Mixed stereotype content for gay male subgroups explains overall ratings. *Social Cognition, 23*(2), 161-181.
- Davies, M. (2004). Correlat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gay men: Sexism, male role norms, and male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1*(3), 259-266.
- Fiske, S. T. (2000).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t the seam between the centuries: Evolution, culture, mind, and br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3), 299-322.
- Fiske, S.,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riedman, M. S., Koeske, G. F., Silvestre, A. J., Korr, W. S., & Sites, E. W. (2006). The impact of gender-role nonconforming behavior, bullying,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ity among gay male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5), 621-623.
- Geiger, W., Harwood, J., & Hummert, M. L. (2006). College students' multiple stereotypes of lesbians: A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Homosexuality, 51*(3), 165-182.
- Giorgi, A. (1992). Description versus interpretation: compet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3*(2), 119-135.
- Graham, S. R., Carney, J. S., & Kluck, A. S. (2012). Perceived competency in working with LGB clients: Where are we no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1*(1), 2-16.
- Gurwitz, S. B., & Marcus, M. (1978). Effects of

- Anticipated Interaction, Sex, and Homosexual Stereotypes on First Impression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8(1), 47-56.
- Haddock, G., Zanna, M. P., & Esse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05-1118.
- Hart, K. P. R. (2000). Representing gay men on American television. *The Journal of Men's Studies*, 9(1), 59-79.
- Israel, T., & Selvidge, M. M. (2003). Contribut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o counselor competen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1(2), 84-98.
- Jin SY, Jung DW, Kim JW, Park HJ. (2013). Narrative-case research on lesbians' sexual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and stance on marriage-Focused on Korean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2(3), 89-114.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Jones, M. (2002).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pp. 80-102).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Publishing.
- Kane, ML.,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pp. 1-25). CA: SAGE Publishing.
- Kite, M. E., & Deaux, K. (1987). Gender belief systems: Homosexuality and the implicit invers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1), 83-096.
- Klesse, C. (2005). Bisexual women, non-monogamy and differentialist anti-promiscuity discourses. *Sexualities*, 8(4), 445-464.
- Kruskal, J. B. (1964).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Psychometrika*, 29(2), 115-129.
-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November Park, CA: Sage.
- Kuyper, L., & Fokkema, T. (2011).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Dutch LGBs: Examination of differences between sex and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22-233.
- LaMar, L., & Kite, M. E. (1998).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89-196.
- Landolt, M. A., Bartholomew, K., Saffrey, C., Oram, D., & Perlman, D. (2004). Gender nonconformity, childhood rejection, and adult attachment: A study of gay 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3(2), 117-128.
- Laner, M. R., & Laner, R. H. (1980). Sexual preference or personal style? Why lesbians are disliked. *Journal of Homosexuality*, 5(4), 339-356.
- Lehavot, K., & Lambert, A. J. (2007).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antigay prejudice: On the role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role viol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9(3), 279-292.
- Lewis, R. J., Derlega, V. J., Brown, D., Rose, S., & Henson, J. M. (2009). Sexual minority

- stress, depressive symptoms, and sexual orientation conflict: Focus on the experiences of bisexua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8), 971-992.
- Liben, L. S., Bigler, R. S., Ruble, D. N., Martin, C. L., & Powlishta, K. K. (200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tructs and pathway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2) 1-147.
- Lick, D. J., Durso, L. E., & Johnson, K. L. (2013). Minority stress and physical health among sexual minoriti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5), 521-548.
- Madon, S. (1997). What do people believe about gay males? A study of stereotype content and strength. *Sex Roles, 37*(9-10), 663-685.
- Manese, J. E., Wu, J. T., & Nepomuceno, C. A. (2001). The Effect of Training on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 Exploratory Study Over a Ten Year Period: El efecto de entrenamiento en competencias de consejería multicultural: Un estudio exploratorio sobre un periodo de diez año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9*(1), 31-40.
- Ma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itchell, R. W., Phipps, B. R., Voignier, D., Henson, C., & Ellis, A. L. (2001). Gender Related Attributions and the Gay or Lesbian Label.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0*(1), 74-81.
- Morrison, T. G., & Bearden, A. G. (2007).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homopositivity scale: An instrument measuring endorsement of positive stereotypes about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52*(3-4), 63-89.
- Pachankis, J. E., & Goldfried, M. R. (2006). Social anxiety in young gay m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8), 996-1015.
- Parker, R., & Aggleton, P. (2003). HIV and 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7*(1), 13-24.
- Raley, A. B., & Lucas, J. L. (2006). Stereotype or success? Prime-time television's portrayals of gay male, lesbian, and bisexual characters. *Journal of Homosexuality, 51*(2), 19-38.
- Safren, S. A., & Pantalone, D. W. (2006). *Social anxiety and barriers to resilienc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Examining identity and development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pp.55-7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Sandfort, T. G., de Graaf, R., Bijl, R. V., & Schnabel, P. (2001). Same-sex sexual behavior and psychiatric disorders: Findings from the Netherlands Mental Health Survey and Incidence Study (NEME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1), 85-91.
- Sandfort, T. G., Melendez, R. M., & Diaz, R. M. (2007). Gender nonconformity, homophobia, and mental distress in Latino gay and bisexual men. *Journal of Sex Research, 44*(2), 181-189.
- Schope, R. D., & Eliason, M. J. (2004). Sissies

- and tomboys: Gender role behaviors and homophobia.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16(2), 73-97.
- Staats, G. R. (1978). Stereotype content and social distance: Changing views of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4(1), 15-27.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2), 64-88.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pp. 29-51).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Taylor, A. (1983).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s a basis for stereotypes of male and female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9(1), 37-53.
- Taylor, B. A., Gambourg, M. B., Rivera, M., & Laureano, D. (2006). Constructing cultural competence: Perspectives of family therapists working with Latino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4(5), 429-445.
- Tarrant, M., Dazeley, S., & Cottom, T. (2009). Social categorization and empathy for outgroup memb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3), 427-446.
- Trochim W. M. K. (1993, November). *The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Paper 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Dallas, Texas.
- Weissbach, T. A., & Zagon, G. (1975). The effect of deviant group membership upon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5(2), 263-266.
- Wells, A., Clark, D. M., & Ahmad, S. (1998). How do I look with my minds eye: Perspective taking in social phobic image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6), 631-634.
- Williamson, I. R. (2000). Internalized homophobia and health issues affecting lesbians and gay men. *Health education research*, 15(1), 97-107.
- Wright, E. R., & Perry, B. L. (2006). Sexual identity di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health of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81-110.

원 고 접 수 일 : 2019. 03.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6. 25

게재결정일 : 2019. 10. 02

Heterosexual Men and Women's Perceptions of Gay Men using Concept-Mapping

Hye-min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tudent

Kum-lan Yo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eterosexual men and women's perceptions of gay men using the concept-mapping method. Seventeen heterosexual men and women were interviewed and a total of 90 statements were extracted. After conducting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ith the statements, participants' perception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along two dimensions. The two dimensions were 'negative-positive,' and 'evaluative-sympathetic.' The five categories, in order of importance, were 'vulnerabl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ocially unacceptable,' 'positive characteristics,' 'promiscuous behavior,' and 'gender and sex-related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underlying dimensions of the perceptions of adult heterosexuals about gay men, which has implications for educating counselors and raising awareness of potential biases.

Key words : gay men, adult heterosexuals, perceptions, concept-mapping